

朝鮮後期 忠淸道 全義縣 官衙建築의 配置構成에 관한 研究

金起德

(淸州大學校 建築工學部 博士課程)

李在憲

(淸州大學校 建築工學部 教授)

1. 序

朝鮮時代 地方行政의 중심지였던 邑治¹⁾에는 郡縣을 통치하기 위한 여러 行政施設과 儒敎的 統治體制와 相關된 重要시설들이 邑治를 중심으로 조성되었다. 邑治의 중심인 地方官衙는 東軒, 內衙, 客舍, 그리고 각 行政施設 등을 비롯하여 다양한 시설들이 커다란 建築群을 형성하고 있었으며, 이들 건축물들은 朝鮮時代라는 시대적 規範속에서 造營되었을 것이다.

지금까지 朝鮮時代 官衙建築에 대한 연구²⁾는 미미한 편이며, 地方行政體制의 최상위 기관인 監營에 관한 연구³⁾가 최근에 몇몇 나타나고 있

다. 또한 地方自治時代를 맞이하여 각 地方의 歷史性을 高揚하려는 노력이 여러 분야에서 일어나면서 과거 地方行政의 중심지였던 邑治에 대한 연구⁴⁾가 여러 분야에서 활발하다.

朝鮮王朝 건국 후 의도적으로 전국의 邑治를 일정한 원칙 아래 획일화하고자 한 결과 15세기 중반 경에 접어들면서 전국의 지방 都市들은 공통된 統治施設을 갖추게 되고 그것은 모두 일정한 원칙에 따라 造成되었다.⁵⁾ 지방의 鄕校가 서울의 文廟를 모범으로 삼아 造營되었듯이 지방 도시의 구성형식은 都城과 宮闕을 典型으로 삼아 造營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어진다. 본 연구는 都城과 宮闕의 構成形式이 지방관아의 造營에 미친 影響과 規範을 도출하여 지방관아건축의 實體를 규명하는데 있어 그 기초적 연구라 할 수 있다.

현존하는 遺構만으로는 朝鮮時代 지방관아의 全

1) 邑治는 中央政府가 파견한 地方官이 존재하며 行政官衙들과 행정업무를 집행하는 吏胥들이 거주하는 곳으로 대체로 城이 둘러싸고 있는 區域으로 규정할 수 있다. (李助相, “朝鮮後期 邑治 社會의 構造와 祭儀”, 『歷史學報』, 第147輯, 1995, p.48)

2) 朱南哲, “官衙建築에 관한 研究”, 『大韓建築學會誌』, 28卷 116號, 1984

金鍾永, “朝鮮時代 官衙建築에 관한 研究”, 檀國大 碩士論文, 1988

宋制龍·張明洙, “全州古都 官衙配置의 空間構成에 관한 研究”, 『大韓建築學會學術發論文集』, 第8卷 2號, 1988

이형규, “朝鮮時代 東軒建築의 構成形式에 관한 研究”, 弘益大 碩士論文, 1993

金純一·趙亨來, “朝鮮時代 東萊府의 官衙建築에 관한 研究”, 『港都釜山』, 第13號, 1996

金東植, “淸州邑城 官衙公廡의 規模와 位置에 관한 研究”, 淸州大 碩士論文, 1998

3) 崔榮喆, “朝鮮時代 監營의 職制와 建築의 構成의 相關性에 관한 研究”, 弘益大 博士論文, 1994

조영화, “19世紀末 慶尙監營建築의 配置構成에 관한 研究”, 『建築歷史研究』, 第9卷 2號, 2000

4) 朴炳柱·金哲洙, “韓國 城郭都市의 空間構成原理와 技法에 관한 研究”, 『國土計劃』, 제19권 1호, 1984

林東日, “朝鮮時代 官衙의 立地와 坐向을 통해 본 都·邑의 造營論理 研究”, 漢陽大 博士論文, 1996

丙明海, “朝鮮時代 地方都市의 空間構成原理에 관한 研究(1), (2)”, 『大韓國土·都市計劃學會誌』, 98號, 1998

김선범, “城郭의 都市原形의 解釋: 조선시대 邑城을 중심으로”, 『한국도시지리학회지』, 제2권 2호, 1999

柳應教·朴昶宜, “南原邑城의 空間構造特性에 관한 기초적 研究(1)”, 『大韓國土·都市計劃學會誌』, 91號, 1997

5) 김동욱, 『한국건축의 역사』, 기문당, 1998, pp.160-161

貌을 파악할 수 없다. 따라서 文獻調査를 근간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며, 朝鮮後期の 地圖와 邑誌에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忠淸道 全義縣 地方官衙를 통하여 朝鮮時代 관아건축의 配置構成의 一面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全義縣 관아의 전체적인 모습을 파악하기 위해 朝鮮時代に 편찬된 「朝鮮後期 地方地圖」(1872年)⁶⁾, 「韓國近代道誌」⁷⁾, 「忠淸道邑誌」 51冊⁸⁾(英祖~憲宗代) 및 「湖西邑誌」 17冊(1871年)·「[湖西]邑誌」 7冊(1895年)⁹⁾, 「忠淸左右道都會衙舍細地圖」¹⁰⁾ 등을 주된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연구의 방법은 朝鮮時代 忠淸道 地方의 全義縣에 관한 文獻을 수집·조사하고, 자료를 근거로 관아시설에 대한 配置平面을 추정·圖式化 하였다. 또한 地方官衙가 위치하는 邑治의 空間構造를 살펴보고, 地圖을 중심으로 각각의 시설에 대한 기능, 배치 등 상호관련성을 분석하여 朝鮮後期 官衙建築의 配置形式을 찾고자한다.

2. 地方行政制度

2-1 地方官制

朝鮮은 地方行政組織을 建國初에는 高麗末의 5道兩界의 골격을 유지하다가 太宗代에 전국을 京畿, 忠淸, 全羅, 黃海, 江原, 慶尙, 咸鏡, 平安의 8道로 나누고, 그 밑에 府, 大都護府, 牧, 都護府, 郡, 縣을 두었다. 이들 340여 개의 지방에는 外官, 外職, 外任 등으로 불리어지는 觀察使(從二品), 그 밑에 守令인 府尹(從二品), 大都護府使(正三品), 牧使(正三品), 都護府使(從三品), 郡守(從四品), 縣令(從五品), 縣監(從六品) 등을 과견, 관할구역을 통할케 하였다.

太祖때부터 논의되기 시작한 地方行政組織은 太宗13年(1413)의 개혁이 있는 뒤에는 (표1 (자료: 「經國大典」/「大典會通」))에서 나타나는 것같이 큰

변동이 없었고 法規는 經國大典의 기록이 要綱을

표 1. 朝鮮時代 道別 州府郡縣의 變化

區分	府	大都護府	牧	都護府	郡	大縣	小縣	計
京畿	-	-	4/3	7/8	7/10	5/4	14/8	37/33
忠淸	-	-	4/4	-/1	12/14	1/1	37/34	54/54
慶尙	1/1	1/2	3/3	7/14	14/13	7/5	34/33	67/71
全羅	1/1	-	3/4	4/7	12/13	6/5	31/26	57/56
黃海	-	-	2/2	4/6	7/7	4/2	7/6	24/23
江原	-	1/1	1/1	5/7	7/6	3/3	9/8	26/26
咸鏡	1/1	1/1	-/1	11/18	5/2	-	4/2	22/25
平安	1/2	1/1	3/2	6/14	18/12	8/6	5/5	41/42

이루는데, 전국을 8道로 나누고 그 밑에 4府, 4大都護府, 20牧, 43都護府, 82郡, 175縣을 둔 형태였다.

이들 郡縣은 君主가 획일적이고 집중적인 권력을 官僚機構를 통해 지방주민을 지배하기 위하여 설정한 行政區域인 것이다.¹¹⁾ 조선의 郡縣制란 지방의 郡과 縣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監營을 제외한 牧(州)·都護府·郡·縣 등 지방의 행정구획 전부를 총칭해서 부른 명칭이며, 牧使·府使·郡守·縣令·縣監을 총칭하여 守令이라 하였다.

2-2 地方官衙의 主要施設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地方官衙의 주요 시설들을 살펴보면, 먼저 東軒으로 中央에서 守令이 파견되어 政務를 보던 廳舍로 正堂 혹은 正廳이라고도 한다. 또한 內東軒이라 불리는 牧民官이 살림을 하기 위한 살림채인 內衙가 共存하게 된다.¹²⁾

다음으로 客舍가 있는데, 地方의 客舍는 主舍에 殿牌와 闕牌를 모셔두고 그 고을의 守令이 새로 赴任해 왔을 때, 또 초하루와 보름, 한 달에 두 번씩 向闕望拜하는 기능과 中央에서 파견된, 또는 旅行을 하게된 官僚들의 숙박을 위한 두 가지 機能을 수행한다.¹³⁾

그리고 鄉廳은 朝鮮初의 留鄉所인 지방 在地土族들의 향촌자율기구였으나 16세기에 접어들면서 수령을 보좌하며 地方統治行政을 담당하게 되었

6) 서울大學校 奎章閣, 朝鮮後期 地方地圖: 忠淸道편, 全義縣地圖(奎10404), 1998

7) 韓國人文科學院, 「韓國近代道誌 4」, 「忠淸南道誌 3」, 1991, p.89

8) 全義縣, 「韓國地理志叢書 邑誌 七」, 忠淸道 ①, 亞細亞文化社, 1984

9) 全義, 「韓國地理志叢書 邑誌 八·九」, 忠淸道② ③, 亞細亞文化社, 1984 (두 권의 全義邑誌는 全城誌라 불리고 같은 내용으로 꾸며져 있으며, 같은 때 쓰여진 것으로 보인다. 癸丑五月二十日新修)

10) 서울大學校 奎章閣, 奎4709-18-古

11) 이상태, 「한국 고지도 발달사」, 혜안, 1999, pp.137-138

12) 朱南哲, 「官衙建築에 관한 研究」, 「大韓建築學會誌」, 28卷 116號, 8402, p.35

13) 朱南哲, 「客舍建築의 研究」, 「大韓建築學會論文集」, 2卷 3號, 8606, pp.80-81

다. 留鄉所의 건물인 동시에 鄉案을 소장했던 鄉射堂도 처음에는 독자적인 건물을 갖지 못한 郡縣이 많았고, 또 郡縣에 따라서는 처음에는 단지 武備를 대비한 習射장소로서 시작해서 鄉廳으로 발전했다.¹⁴⁾

지방의 實務를 담당하는 作廳은 흔히 官吏라고 하는 衙前¹⁵⁾들이 모여 집무를 보던 곳으로, 吏胥들의 집무처로서 공식적으로는 人吏廳 또는 吏廳이라 하였지만 星廳, 길청, 椽廳이라고도 하였다.

그밖에 守衛의 비서가 거처하는 冊房, 刑吏들의 집무처인 刑廳, 將官들이 군무를 보던 將官廳, 將校들이 兵務를 주관하던 軍官廳, 수령의 각종 명령을 전달·전파·집행하는 使令들의 거처인 使令廳 등이 있다.

3. 全義縣 官衙의 史的 考察

全義縣은 본래 百濟의 仇知縣이었는데 新羅때 金池로 고쳐서 大麗郡의 領縣이 되었다가 고려때 와서 지금의 이름으로 고치고 淸州에 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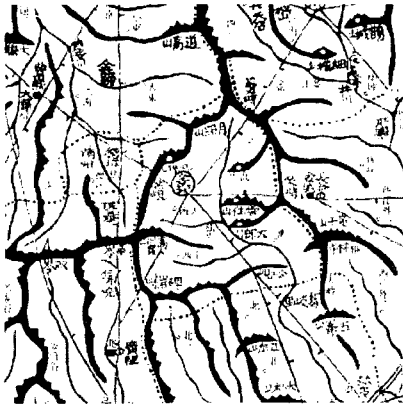


그림 1. 全義縣 (大東輿地圖)

朝鮮 太祖 4년에 監務를 두었다가 太宗 13년에 縣監을 두고 다음해(明年)에 燕岐와 합하여 全岐縣으로 하였다가 16년에 각각 全義縣¹⁶⁾과 燕岐縣으로 復舊하였다.¹⁷⁾ 조선 高宗 32年(1895) 지방관제 개정에 의하여 忠淸北道 淸州郡의 德坪面의 8

개리를 전부 편입하여 全義郡이 되었다가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燕岐郡에 편입되어 全義面과 全東面이 되었다.¹⁸⁾

3-1 官衙의 官制 및 施設

(1) 官制

全義縣의 官制를 「湖西邑誌」를 통해서 살펴보면,¹⁹⁾

“縣監 一人 兼兵馬節制都尉(從六品文蔭交遞) 訓導 一人 (舊制 府牧置教授一人從六品 郡縣置訓導一人從九品 掌本邑教學 宣祖壬辰後革罷) 座首 一人 別監 二人 衙前 十八人 通引 九人 使令 十二人 (即拿卒或稱羅卒) 官奴 十三人 官婢 十名 (水汲婢) 帶率軍官 十一人 (本三十人 有行兵房掌務等三所 餘皆輪直) 選武軍官 二十人”

縣監이 1人²⁰⁾으로 兵馬節制都尉를 겸하고 있으며, 과거에는 訓導가 1人 있었는데, 壬辰倭亂후에 혁파되었다. 向임으로 座首 1人, 別監 2人이 있고, 실무를 담당하는 衙前이 18人, 通引 9人, 使令 12人 이 있다. 그리고 公奴婢인 官奴가 13人, 水汲婢인 官婢가 10名이 있으며, 본래 30人이었던 軍官이 11人 있고, 英祖때 생긴 選武軍官²¹⁾이 20人 있어서 유사시에 고을을 지킨다.

이와 같이 全義縣 관아의 인적구성은 유일한 官人인 守衛를 정점으로 수령을 보좌하는 鄉任과 실무를 담당하는 鄉吏層, 그리고 官衙의 잡일을 수행하는 奴婢階層으로 구성된다.

(2) 官衙의 立地와 施設

조선조 聚落은 地勢條件이 聚落立地의 類型뿐만 아니라 立地構造와 機能, 그리고 特性까지 영향을 미쳤음은 분명하지만 더 중요하고도 決定的인 영향을 미쳤던 것은 當時의 地理的 價值觀이었

18) 조치원문화원, 「全義鄉土誌」, 1997, p.14

19) 「湖西邑誌」, 全城誌, 官職條

20) 朝鮮時代에는 각 직책의 인원을 표시하는 단위가 員·人·名의 세 가지가 있는데, 員은 兩班계층, 人은 中人계층, 名은 平民계층을 의미한다. (조성운, “조선후기 사회변동과 행정직 중인”, 「韓國近代移行期 中人研究」, 신서원, pp.71-72) 그러나 「忠淸道地方 邑誌類의 官職條」를 보면, 員·人·名·口 등의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는 郡縣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타난다.

21) 1751年(英祖 27)에 지방의 호호들과 잘 사는 집 자식들로 조직하여 일반군사들보다 우대하면서 평상시에는 집에서 군사일을 익히다가 나라에 사면이 있을 때 동원되어 군사들을 거느리게 하던 군대.(오희복, 「봉건 관료기구 및 벼슬이름 편람」, 여강출판사, 1992, p.178)

14) 李樹健, 「朝鮮時代 地方行政史」, 民音社, 1989, p.346

15) 「湖西邑誌」, 木川縣, 官員條 ‘衙前 二十人 即官吏 鄉吏稱貢生 假吏稱律生’

16) 全義縣의 명칭에 대한 변경을 살펴보면, 仇池, 金池, 全岐, 全城, 全義 등으로 변해왔다. (「忠淸道邑誌」, 全義縣, 郡名條)

17) 「新增東國輿地勝覽」, 卷之十八, 全義縣, 建置沿革

던 風水說로 생각되는데, 이는 朝鮮朝의 대표적인 官撰地理誌인 新增東國輿地勝覽에서 모든 邑聚落山川條에서 반드시 鎮山을 명기하고 있다는 점²²⁾에서 판단할 수 있다.

全義縣의 鎮山은 甑山으로 현의 北西쪽 5리에 있으며,²³⁾ 속칭 雙與峯이라고 한다. 그리고 현의 북쪽 10리에 月照山이 있는데, 본 邑의 여러 산중에서 祖山이며 雲住山이 현의 동쪽 8리에 있으며, 또한 縣의 남쪽 8리에는 雲霧山과 李城山이 邑治의 案對가 되고 있다.²⁴⁾ 邑治를 흐르는 주요한 하천은 縣의 西南쪽에 生拙川, 縣의 서쪽에 西部川, 그리고 縣의 북쪽에서 발원하는 北部川 등이 합류한 뒤 동쪽으로 빠져나간다.²⁵⁾

이와 같이 세 봉우리와 세 개의 하천 사이에 약간의 평야가 盆地의 형태로 자리하는 곳에 邑治가 자리하고 있으며, 邑城²⁶⁾은 축조하지 않았다.



그림 2. 朝鮮後期 全義縣 地方地圖
(A:증산, B:운주산, C:월조산, D:운점산)

全義縣은 邑治를 중심으로 社稷壇이 都城의 社

22) 崔昌祚, 「韓國의 風水思想」, 민음사, 1995, p.273
23) 「新增東國輿地勝覽」 卷之十八, 全義縣, 山川條
24) 「湖西邑誌」, 全城誌, 山川條
25) 「湖西邑誌」, 全城誌, 山川條
26) 「輿地圖書」에 나타난 道別 行政單位別 邑城數를 살펴보면, 누락된 郡縣을 포함하면 334개의 郡縣중에서 邑城을 築造한 郡縣은 110개이며 忠淸道의 경우, 51개중에서 불과 13개 郡縣뿐이다. (李相稜, 「朝鮮中期 邑城에 관한 研究」, 서울대 석사논문, 1983, pp.91-94)

稷壇과 같이 縣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城隍祠는 3間으로 社稷壇의 서쪽에 배치²⁷⁾되어 있다. 厲壇은 縣의 북쪽에 있는데, 神室 2間, 齋室 3間으로 사직단과 같은 구성을 보이고 있으며, 또한 東軒의 서쪽 100步 정도 떨어진 곳에 鄉校에 있는데, 향교에 文廟가 있다.²⁸⁾

이러한 邑誌上的 설명은 全義縣의 각종 지도와 일치하는 것으로 다른 고을과 다름없이 각종 祭祀 시설들이 邑治를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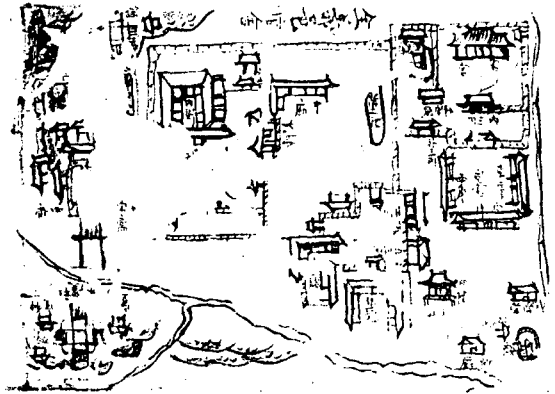


그림 3. 全義縣 官舍 (忠淸左右道都會衙舍細地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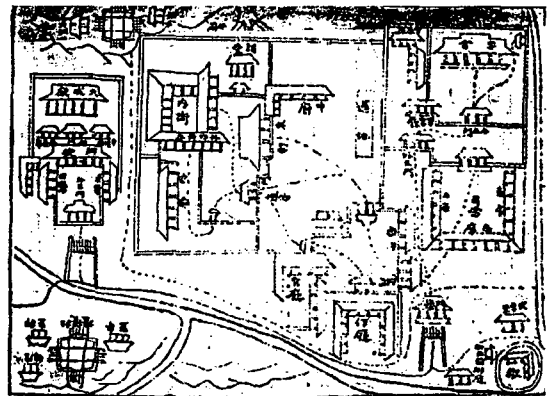


그림 4. 全義縣 官衙圖 (韓國近代道誌)

(그림 3, 4)에 나타난 全義縣 官衙의 표현은 동일한 내용임을 알 수 있으며, 官衙公廨의 시설과 규모를 살펴보면, 먼저 客舍의 본관은 壁大廳, 東大廳, 西大廳으로 20間 규모이며, 內三門과 外三門

27) 「湖西邑誌」, 全城誌, 壇廟條

28) 「輿地圖書(1756~1765年)」의 기록을 살펴보면, 鄉校는 관문 서쪽 1리에 있었고, 社稷壇은 서쪽 5리, 城隍堂은 동쪽 5리, 厲壇은 북쪽 5리에 있었다. 따라서 후에 각종 시설들이 移建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설치되어 있다. 東軒영역은 수령의 政廳인 8間의 동헌과 내삼문, 외대문, 工庫, 그리고 行廊 등으로 형성되며, 동헌의 후면에는 守丞의 私의空間인 內衙가 있다. 內衙는 15間半으로 방과 대청, 그리고 부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內衙에 붙여 內冊房이 있고, 주위로 祠堂, 外冊房, 行廊 등이 위치하고 있다.

作廳을 비롯한 行政廳舍는 內三門과 外三門사이와 外三門 바깥으로 펼쳐져 있다. 六房官屬이 있는 작정이 가장 규모가 크고, 지방의 在地士族이 거처하는 鄉廳과 죄인을 가두는 刑獄은 관아의 중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客舍의 전면에는 고을의 倉庫가 司倉을 중심으로 ㄷ字型으로 배치되어 있다.(표 3. 참조²⁹⁾)

3-2 全義縣 官衙의 空間構成

地方官衙의 전체적인 構成은 客舍, 東軒, 內衙, 鄉廳, 作廳, 刑獄, 倉庫 등 몇 개의 領域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각의 영역은 出入門과 담장에 의해서 한정되는데, 관아의 門은 二層 樓門인 外三門과 東軒으로 진입하기 위한 內三門이 주요한 기준이 된다.

(1) 東軒領域

東軒領域은 수령이 政務를 보는 東軒건물과 수령의 가족이 일상생활을 하는 內衙, 그리고 수령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한 하급관속들의 廳舍로 구성된다. 全義縣官衙 東軒의 平面構成을 살펴보면,

“東軒 八間 在客舍之西 南東向 房三間-長二間 廣間半 大廳四間 房前退二間”

으로³⁰⁾ 기재되어 있는데, 全義縣의 東軒는 宰사의 서쪽에 南東向으로 위치하고 있고, 방이 2×1.5間

의 3間이고 大廳이 4間이다. 그리고 房의 전면으로 退間이 2間있어 총 8間 규모이다.

그리고 官衙의 內衙는 守丞의 가족이 생활하는 곳으로 朝鮮時代 일반 上流住宅의 안채와 同一하나, 기타 부속건물의 構造도 민도리집 계통으로 소박하고 단아하며 온돌과 마루구조 되어있는³¹⁾ 것이 일반적인데, 全義縣의 內衙를 살펴보면,

“內衙 十五間半 (在東軒西) 大廳 四間半(三間前退南向) 上房 二間(東向) 越房 二間(東向) 餘三廚二門”

으로³²⁾ 全義縣의 內衙는 大廳이 4間半인데 그 중 3間的 전면에 退가 있고 남향을 취하고 있다. 房이 좌우측에 있는데, 上房이 2間的 東向이고 건넌방인 越房이 2間으로 역시 東向하고 있으며, 부엌이 3곳, 門이 2곳에 설치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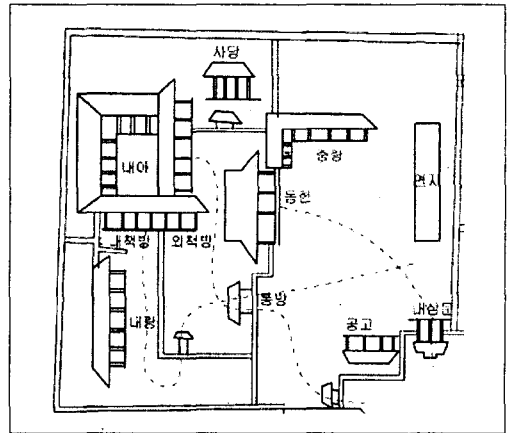


그림 5. 東軒과 內衙 領域

그리고 東軒의 측면에는 茶母房, 及唱房, 馬廐, 廁間 등이 있는 中廊이 남향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후면에는 內衙에 붙여 外冊房이 위치하고 있다. 內衙의 영역에는 祠堂과 內冊房, 그리고 앞에 內廊이 담장에 의해서 東軒領域과 분리되어 있다.³³⁾

(2) 客舍領域

客舍의 본관을 구성하는 공간들은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리어졌는데,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은

29) 본 연구에서는 여러 읍지중에서 시기적으로 가장 빠르고 내용이 자세한 「全城誌」를 기본으로 하였다. 「忠淸道邑誌」는 1793年(正祖 17)에 작성한 「全城誌」를 바탕으로 하여 다른 항목은 轉寫하고 田結, 賦稅, 徭役, 倉穀, 廩俸, 軍額, 軍器 등 조는 기준연도가 1819年으로 바뀌어 내용이 변화되었다. 또한 莅任조도 첨가하여 1845年(憲宗11) 8月까지 기록하였으며, 人物에 관한 元居, 僑寓, 名宦, 儒行, 節義, 孝烈 등 항목에도 각각 첨가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湖西邑誌」 17冊은 1871年(高宗 8)에 편찬된 것으로 邑誌 작성 목적과 과정 등을 알려주는 序, 跋 등이 실려 있으나 이전 시기에 편찬된 邑誌를 참고로 하여 轉寫하는 과정에서 재수록해 놓은 것이다. (楊普景, 「忠淸道邑誌 解題」, 邑誌 七, 忠淸道①, 亞細亞文化社, 1984, pp.6-9)

30) 「湖西邑誌」, 全城誌, 公廩條

31) 金鍾永, 「朝鮮時代 官衙建築에 관한 研究」, 檀國大 碩士論文, 1988, p.126

32) 「湖西邑誌」, 全城誌, 公廩條

33) 「湖西邑誌」, 全城誌, 公廩條, 「中廊 九間 在東軒庭北 南向有茶母房 及唱房 馬廐 廁間, 祠堂 房三間 廳一間 在東軒內衙間 近北 南向, 內冊房 房二間 廳二間 內衙附舍 南向, 內廊 五間 在內冊房前 東向」

중앙부를 大廳 혹은 壁大廳으로 칭한 것이고 좌우 부속건물은 東軒과 西軒으로 칭한 것이다. 그리고 大廳 좌우 건물은 上房·狹室 등으로 칭하기도 하였으며, 이때 본관은 중앙의 大廳이 東·西軒보다는 높게 구성되는 것이 보통이었다.³⁴⁾

全義縣 客舍의 본관은 壁大廳(殿大廳), 東大廳(東軒), 西大廳(西軒)의 기본적인 구성형식을 보이는데, 객사의 구체적인 평면구성을 邑誌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客舍 二十間(南向 長十間 廣二間) 壁大廳 三間(廣二間) 東大廳 四間(廣二間 內二間爲房) 西大廳 三間(廣二間) 內三門 三間 外三門(金池館) 三間”

으로³⁵⁾ 중앙의 3×2間인 大廳을 중심으로 좌측에 房 2間을 갖춘 8間 규모의 東大廳과 우측의 3×2間인 6間 규모의 西大廳으로 총 20間으로 구성되어 있다.

客舍의 서쪽으로 軍事的 職制와 관련이 있는 軍器廳, 軍官廳, 그리고 軍器庫 등이 객사의 外三門안쪽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外三門은 內三門과 客舍의 軸線上에서 벗어나 위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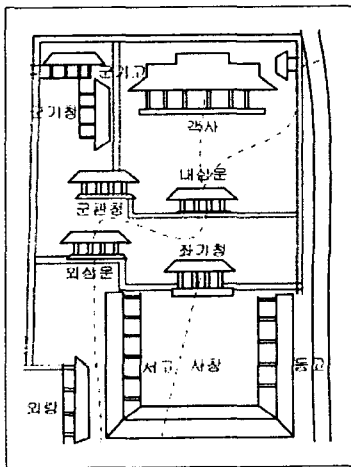


그림 6. 客舍領域

(3) 全義鄉校

「朝鮮時代 全義縣 邑誌」에 나타난 鄉校의 시설과 규모에 에 관한 설명을 살펴보면,³⁶⁾

“舊在縣東二里 肅宗甲子…移建于縣衙西牆外 百餘步 大成殿 十五間 長五間 廣三間(南向) 東·西廡 東儒을 配享 祭器庫 三間(在神門西) 守僕房 三間(在神門東) 明倫堂 十間(長五間 廣二間) 內 大廳六間 東西房 各二間 東·西齋 各 四間 典祀廳 七間 外三門 並樓 三間”

으로 옛날에는 縣의 동쪽 2리에 있었는데, 肅宗甲子年(1684)에 縣衙의 서쪽 담장으로 100步³⁷⁾ 떨어진 곳(約126m)으로 移建하였다.

大成殿은 南向하고 있으며 5×3間으로 15間 규모이며, 大成殿 內에 東廡와 西廡를 두어 우리나라의 유학자를 배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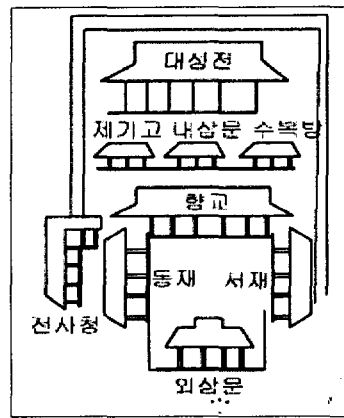


그림 7. 全義鄉校

또한 祭器庫가 3間으로 內三門 서쪽에 있으며, 守僕房은 3間으로 內三門의 동쪽에 있다. 明倫堂은 5×2間으로 大廳이 6間, 東西房 各2間으로 10間 규모이며, 東齋와 西齋는 각각 4間으로 되어 있다. 또한 典祀廳이 7間이고 外三門이 樓형식으로 3間이다.

3-3 附屬施設

(1) 刑獄

조선시대 지방관아의 獄은 刑房에 소속된 중요한 기관으로 대개 등근 牆壁으로 둘러싸인 커다란 圓形의 刑獄으로서 獄牆 또는 環獄이라고도 한다. 刑獄의 內부는 중죄인을 취급하는 重庫와 일반죄수를 수감하기 위한 房과 廳이 있는데 이때 女獄과 男獄으로 구분³⁸⁾되며, 옥사장을 위한 鎖匠房

34) 平澤郡, 「彭城邑客舍 實測調査報告書」, 1994, p.20

35) 「湖西邑誌」, 全城誌, 公廳條

36) 「湖西邑誌」, 全城誌, 學校條

37) 步는 周尺의 여섯 자(尺)로, 조선왕조 諸尺度중에서 肅宗때는 經國大典에 기록된 尺度를 기준으로 볼 때, 周尺은 21.04cm이다.(申榮勳, 「韓國古建築斷章」上, 동산문화사, 1975, pp.82-87)

등으로 구성된다.

중죄인은 枷를 씌워서 重庫에 가두고 가벼운 죄인은 보통 房과 廳에 가두지만 獄牆안에서의 행동은 어느 정도 자유이며, 특히 옥문은 겨우 사람이 출입할 정도의 협소한 구조로 되어 있다.³⁹⁾

全義縣의 경우

“刑獄 在鄉廳之南 牆周 六十餘間 內屋五間 鎖匠房二間”

으로⁴⁰⁾ 刑獄은 鄉廳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獄담장의 둘레는 60여間 정도이다. 刑獄의 안에는 죄인을 가두어두는 內室이 5間, 그리고 옥사장의 房이 2間으로 되어 있다.

(2) 官衙門의 構造

內三門은 동헌으로 진입하기 위한 마지막 관문으로서 三門이 암시하듯 일반적으로 3間的 솟을대문으로 구성된다. 이 內三門은 단순히 大門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郡縣에 따라 다양한 機能이 附加된다.

內三門의 構成을 邑誌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全義縣 邑誌」에 비교적 상세히 나와 있는데,

“內三門(金池內門) 三間 (南向) 正間官長賓客出入 東夾鄉所邑子把總軍器監官出入 西夾軍官將校吏隸訟民出入 又有夾門一間 在三門之南吏隸私出入”

으로⁴¹⁾ 內三門의 이름은 金池內門이고 3間으로 南向을 취하고 있다.

內三門의 가운데 正間은 고을 守令과 賓客이 이용하고 동쪽의 夾間은 鄉廳의 鄉所, 邑內의 儒生인 邑子, 軍營의 武官인 把總, 軍器監官 등이 출입하고, 서쪽의 夾間은 軍官, 將校, 鄉吏와 奴婢, 訟民 등이 출입한다. 또한 三門의 남쪽에 夾門이 1間 있는데, 鄉吏와 奴婢官屬, 그리고 守令의 私의인 사람이 출입한다.

朝鮮時代 정치와 행정의 최고 官府인 宮闕⁴²⁾의 대문에서도 중앙, 그리고 동쪽문과 서쪽문의 출입 자격이 다르듯이 最下位 官府인 지방관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儒敎的 思惟體系에 의한 上下의 位階秩序가 공간구성에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外三門(外大門)은 地方官衙의 衙門으로서 보통 二層의 樓閣형식⁴³⁾으로 1層에는 三門을 달아 東軒으로 出入할 수 있도록 하고, 2層에는 樓閣을 설치하여 평시에 眺望할 수 있는 樓의 역할을 하고 戰時에는 將師의 指揮所로 이용되기도 하였다.⁴⁴⁾

그러나 全義縣의 경우에는 外三門이 內三門 앞에 있고, 그 앞에 또 다시 2층의 門樓가 존재한다. 다른 지방관아의 外三門과 유사한 구조를 가진 것은 2층 門樓로서 「邑誌上」의 기록에는 보이지 않지만 각 종 地圖에는 빠짐없이 그려져 있는 것으로 보아 外三門과 2층 門樓가 모두 존재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湖西邑誌」에 나타난 外三門은

“外大門(全義縣門) 三間 東向 南一間 歇所廳”

으로⁴⁵⁾ 全義縣門인 外大門은 3間으로 東向하고 있으며, 남쪽의 1間은 訟民들이 대기하는 歇所廳으로 되어 있다.

표 2. 忠淸道地方 現存 衙門의 現況 (m)

區分	正面間 (側面間)				
	間數	左端間	中央	右端間	全體길이
連山	3×2	2.50(2.20)	3.05	2.50(2.20)	8.05(4.40)
溫州	3×2	2.45(2.30)	3.10	2.45(2.30)	8.00(4.60)
牙山	3×2	2.20(2.35)	2.80	2.20(2.35)	7.20(4.70)
保寧	3×2	1.95(2.20)	3.20	1.95(2.20)	7.10(4.40)
瑞山	3×2	2.50(2.33)	3.10	2.50(2.33)	8.10(4.66)
稷山	3×2	2.45(2.30)	3.06	2.45(2.30)	7.96(4.60)
藍浦	3×2	2.13(2.30)	3.06	2.13(2.30)	7.32(4.60)
平均	3×2	2.31(2.28)	3.05	2.31(2.28)	7.68(4.57)

(표 3.)에서와 같이 현존하는 지방관아의 衙門을 살펴보면⁴⁶⁾, 모두가 6間 규모의 2층 樓閣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全義縣의 衙門은 外大門으로 단층의 3間 구조인데, 이는 外大

38) 「[湖西]邑誌」, 永同縣 邑事例, 刑房

39) 密陽文化院, 「密陽誌」, 1987, p.520

40) 「湖西邑誌」, 全城誌, 公廨條

41) 「湖西邑誌」, 全城誌, 公廨條

42) 洪順敏, “朝鮮王朝 宮闕 經營과 兩闕體制的 변천”, 서울대 博士論文, 1996, p.213

43) 「湖西邑誌」, 鴻山縣, 公廨條 ‘外三門(集鴻樓) 二層 十二間’

44) 朴萬植·李達勳, “衙門建築의 樣式에 관한 研究”, 「백제연구」, 16, 1985, p.33

45) 「湖西邑誌」, 全城誌, 公廨條

46) 朴萬植·李達勳, 前揭論文, p.42

표 3. 全義縣의 官衙公廨

		湖西邑誌(全城誌)	推定規模(間)
官衙公廨	客舍	客舍 二十間(南向 長十間 廣二間)	20(10×2)
		壁大廳 三間(廣二間)	6(3×2)
		東大廳 四間(廣二間 內二間爲房)	8(4×2)
		西大廳 三間(廣二間)	6(3×2)
		內三門 三間	3(3×1)
		外三門(金池館) 三間	3(3×1)
	東軒	東軒 八間(在客舍之西 南東向 房三間-長二間 廣間半 大廳四間 房前退二間)	8(4×2)
		內三門(金池內門) 三間(南向)	6(3×2)
		中廊 九間(在東軒庭北 南向 有茶母房 及唱房 馬廐 廁間)	9(ㄱ字型)
		工庫 三間(在東軒庭南 北向)	3(3×1)
		內衙 十五間半(在東軒西)大廳 四間半(三間前退 南向) 上房 二間(東向) 越房 二間(東向) 餘三廚二門	15.5(ㄷ字型)
		祠堂 房三間 廳一間(在東軒內衙間近北 南向)	4(4×1)
		內冊房 房二間 廳二間(內衙附舍 南向)	4(4×1)
		外冊房 房二間 廳一間(在內冊房之東 南向)	3(3×1)
		冊房中門 二間(在東軒之南 內一間通房)	2(2×1)
		內廊 五間(在內冊房前 東向)	5(5×1)
	中門 一脚門	1(一脚門)	
	行政廳	外大門(全義縣門) 三間(東向 南一間 歇所廳)	3(3×1)
		外廊 六間(在外大門之北 西向 有鼓吹廳 使令長房)	6(6×1)
		官廳(在工庫南 ㄱ向)(掌飲食供饋日用之資) 正廳四間(俱退)雜庫三間	7(ㄱ字型)
		蕃庫 八間(在官廳前 西向 儲需米)	8(4×2)
		軍器庫 二間(在客舍西)	2(2×1)
		軍器廳 五間(在軍器庫之南 西向)	5(5×1)
		軍官廳 四間(在軍器廳南 ㄱ向)	4(4×1)
		作廳 凡十四間(在官廳之東)(作音秩)	14(ㄷ字型)
		鄉廳(鄉射堂) 凡八間(在作廳之東南)	8(4×2)
		縣司(掌柴炭以供官用無官廩戶長受雜役米藏於蕃庫而用之)	—
		武學堂 四間 前退(在司倉東南 軍校講武之所)	4(4×1)
		刑獄(在鄉廳之南 牆周 六十餘間) 內屋五間 鎖匠房 二間	5(ㄱ字型), 2(2×1)
		倉庫	司倉 七十四間(在客舍南)
	坐起廳 六間		6(3×2)
	南倉 十八間		18(9×2)
東西各庫 二十四間	24(12×2)		
門間 二間(自天字至日字凡爲九庫)	2(2×1)		
壇廟	社稷壇(在縣西三里 神室二間 齋室三間)	2(2×1), 3(3×1)	
	文廟(在鄉校)	15(5×3)	
	城隍祠(三間 在社稷壇之西)	3(3×1)	
厲壇(在縣北里 神室二間 齋室三間)	2(2×1), 3(3×1)		

문의 전면에 2층 門樓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3) 邑倉

朝鮮時代의 賦稅制度는 지방의 邑治를 중심으로 여러 지역에 많은 倉庫를 건립하게 하였다⁴⁷⁾. 본 연구에서는 城內의 邑治를 중심으로 郡縣의 官衙에서 사용하는 邑倉 또는 司倉으로 범위를 제한하였다.

邑誌上에 나타난 倉庫의 構成에 대해 살펴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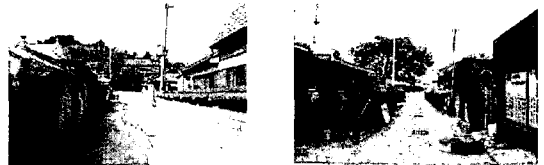
“司倉 在客舍南 七十四間 內坐起廳 六間 …南倉 十八間…東西各庫 二十四間 門間 二間… 自天字至日字 凡爲九庫”

으로⁴⁸⁾ 司倉은 七十四間규모로 客舍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무를 담당하는 坐起廳이 6間이고 南倉 18間, 東·西庫 각각 24間, 門間 2間 등 天字庫부터 日字庫까지 모두 9개의 倉庫가 있다. 「韓國近代道誌」에 나타난 全義縣 官衙地圖를 바탕으로 「湖西邑誌」에 표기된 官衙의 시설규모를 각각의 그림에 적용하여 圖式化하였다. 단, 司倉의 경우는 지도의 그림과 시설규모의 오차가 심하여 그림에 맞춰 尺度를 조절하였다.⁴⁹⁾ 邑誌에 나타난 각 시설의 설명과 地圖에 나타난 각각의 시설의

위치를 토대로 하였기 때문에 配置構成을 고찰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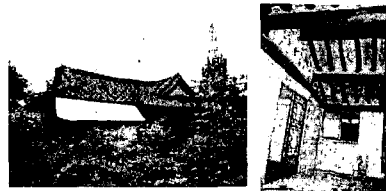
4. 全義縣 官衙의 配置構成

4-1 全義縣 官衙의 位置 推定



전의향교

전의 초등학교



작칭

작칭 내부

그림 9. 全義縣 現存建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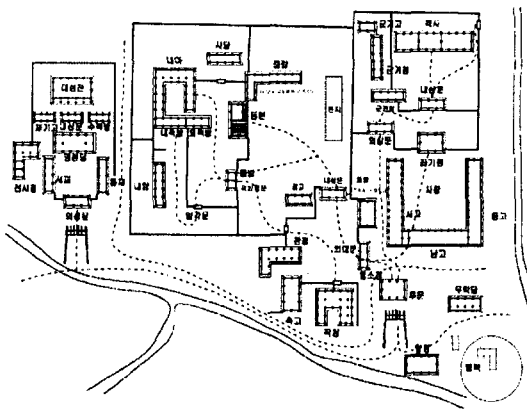


그림 8. 全義縣 官衙 推定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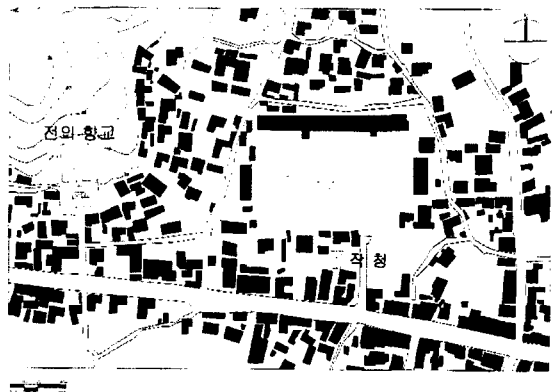


그림 10. 全義縣 官衙 現存建物 位置圖

지금의 全義 初等學校 자리 일대가 조선시대 全義縣 官衙의 위치로 알려져 있었다. 全義縣 官衙의 위치를 추정하기 위하여 全義鄉校와 官衙의 건물 중 유일하게 남아있는 당시의 作廳으로 추정되는 건물을 조사하고 全義面 도시계획지형지적도(1998年)에 위치를 확인하였다.(그림 10.)

전의 초등학교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全義鄉校는 현재 大成殿과 明倫堂이 보존, 관리되고 있으며, 全義縣 官衙의 作廳⁵⁰⁾으로 추정되는 건물이

47) 「輿地圖書」, 忠淸道邑誌, 湖西邑誌의 倉庫條 參照

48) 「湖西邑誌」, 全城誌, 公廨條

49) 尺度의 확인을 위해서 肅宗때 移建된 鄉校에서 사용된 尺度를 조사하였다. 그런데 現存하는 全義鄉校 大成殿과 明倫堂의 間 사이를 조사한 결과 235~280cm로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作廳으로 추정되는 건물(210~270cm)에서도 일정한 尺度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經國大典에 기록된 尺度로 1間的 尺寸을 營造尺(31.21cm) 8尺(240~250cm)으로 설정하여 그림과 같이 圖式化 하였다.

全義 初等學校의 정문 옆에 변형이 심한 채로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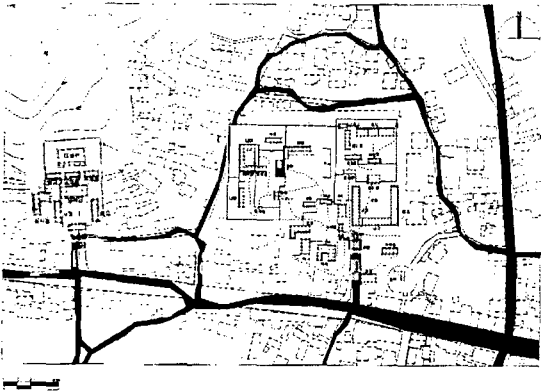


그림 11. 全義縣官衙 位置 推定圖

邑誌의 기록에서 보이듯이 全義鄉校와 官衙는 약 100步, 즉 126m정도 떨어져 있다는 기록은 현재의 지도상에서 직선거리로 110m정도 거리를 갖는 것으로 보아 거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당시의 도로를 확인하기 위하여 1910년에 실측된 全義面 地籍圖에서 실측 당시의 도로를 추정하고 도시계획지형지적도에 나타난 현재의 도로에 겹쳐보았다. 全義鄉校와 作廳으로 추정되는 건물의 위치를 표시하고 韓國近代道誌에 나타난 全義縣 관아의 지도와 대응시켜 보았다.

(그림 11.)과 같이 조선시대 全義縣 관아지도와 현재의 지도는 정확히 일치하지 않지만 邑治를 통과하는 중심도로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1910년에 실측된 도로들 사이, 즉 지금의 全義 初等學校 일대가 조선시대 邑治의 중심인 官衙가 위치하였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4-2 官衙의 配置規範

周禮考工記에 명시되어 있는 國都의 구성원리에는 前朝後市, 左廟右社가 있으며, 궁궐의 구성원리는 前朝後寢과 三門三朝⁵¹⁾가 있다. 이러한 제도

50) 作廳으로 推定되는 것은 지도와 그림에서 건물의 形態가 ㄷ字 형태인 시설은 作廳과 司倉인데, 그 규모나 위치로 볼 때 作廳으로 추정된다. 현재의 건물은 ㄱ字 形態이나 중간에 잘려나간 부분으로 보아 原型은 ㄷ字 형태로 보인다.

51) 三門三朝라는 개념은 周禮의 원문에서 명시된 바가 없는 후대 학자들의 해석에서 비롯된 설이다. 朝鮮의 正宮인 景福宮에 대한 조선시대 문헌에서 三門三朝에 대한 언급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朝鮮時代 사료에서 景福宮의 공간구성을 언급한 것으로는 前朝後寢 개념이 확인되며, 일상적인 기술에서

적 규정은 이상적 규범으로서, 하나의 기준으로서 받아들여졌다.⁵²⁾



그림 12. 朝鮮時代 漢城圖

漢城의 경우에도 宗廟와 社稷의 위치는 周禮의 「考工記」의 내용을 그대로 따라서 宮闕의 좌우에 배치했다. 그러나 궁궐 자체도 都城의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서북쪽 뒤쪽에 치우쳐 놓였으며, 宗廟와 社稷이 대칭되는 위치에 놓이지 않은 것도 지형조건이 이미 불규칙한 상태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⁵³⁾ 또한 六曹의 남쪽 동서로 뚫린 큰길에 시장을 열어 市街地⁵⁴⁾를 형성하였다. 이는 결과적으로 主題를 의식하였으되 漢城의 지형과 風水의 명당 터를 더 존중하여 都城을 계획하였음을 알 수 있다.⁵⁵⁾

조선왕조 宮闕을 內殿과 外殿으로 구분지을 때, 그 공간 구성의 원칙은 前朝後寢, 즉 앞쪽에 정치를 하는 조정을 두고 뒤쪽에 왕을 비롯한 왕실의 거처인 침전을 배치하는 것으로 正宮이든 離宮이든 궁궐을 조성할 때 중심공간의 영역을 구분짓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⁵⁶⁾으로 나타난다.

朝鮮時代 全義縣은 邑治의 중심에 東軒이 東向에 가깝게 東南向하고, 전면의 동북쪽에 客舍가

는 內殿과 外殿 이라는 용어가 쉽게 찾아진다. (김동욱, “경복궁 건물배치의 三門三朝설에 대한 의문”, 『한국건축역사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2001, 03, p.13)

52) 이강근, 『한국의 궁궐』, 대원사, 1997, pp.98-99

53) 김동욱, 『조선시대 건축의 이해』,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9, p.35

54) 漢文化에 있어서 都城의 基本樣式은 周禮의 都城이지만 隋·唐의 長安城은 宮闕의 위치가 北壁에 접하여 있는 관계로 後市를 左右의 민가 쪽에 配置하였다. (邢基柱, “都城計劃綜考”, 『일본학 5』, 동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 1986, p.239)

55) 이강근, 전거서, p.100

56) 김영모, “중국의 궁실제도와 조선시대 궁궐의 영역분할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제28권, 제3호, 2000, p.34

南向하고 있으며, 鄉校는 東軒의 서쪽에 南向으로 배치되어 있다. 이는 邑治의 가장 중심적인 건물인 東軒을 중심으로 좌측에는 국왕의 생사당⁵⁷⁾이라 할 수 있는 객사가 있고⁵⁸⁾, 우측에는 도성과 마찬가지로 社稷壇이 배치되어 漢城의 배치원리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朝鮮後期의 邑誌類와 忠淸道地方地圖에 기록된 54개의 邑治를 조사한 결과,⁵⁹⁾ 社稷壇의 경우에는 47개 郡縣이 邑誌의 坐向과는 상관없이 서쪽에 위치하여 하나의 규범으로써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客舍의 경우는 東軒의 좌측과 우측에 비슷하게 분포하며, 東軒의 전면에 위치하는 경우도 몇몇 보이고 있는데, 이는 조선시대 각 邑治에 소개하는 客舍의 다양한 機能⁶⁰⁾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郡縣을 통과하는 주도로와의 관계가 더 중요한 배치요인으로 보인다.

그리고 進入을 기준으로 볼 때, 전면에는 守舍의 政務공간인 東軒이, 후면에는 사적인 생활공간인 內衙가 위치하여 宮闕의 內殿과 外殿의 개념이 표현된 것으로 볼 수⁶¹⁾ 있다. 또한 궁궐의 殿閣配置秩序는 무엇보다도 왕의 권위가 天에게

서 부여받았다는 天命說에 의해서, 또한 왕이 국가의 실질적인 最高統治權者로서의 권위를 갖는 것에서부터 궁궐 내에서 王의 空間이 中心의 상징이 됨으로써 궁궐이 中心과 周邊으로 구조화되는 것⁶²⁾처럼 全義縣은 東軒이 전체 官衙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東軒의 주위로 職制에 따라 각각의 시설들이 구성되고 있다. 또한 場市의 경우, 한양에서는 시전행랑이 鐘樓를 중심으로 景福宮의 전면에 형성되었듯이 全義縣의 경우 2日과 7日에 열리는 縣內場⁶³⁾이 東軒의 전면에 설치되었다.

따라서 일정한 원칙아래 형성된 지방 邑治와 地方官衙의 空間構成은 都城과 宮闕을 전형으로 삼아 邑治의 지형조건에 조화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4-3 構成軸과 進入形式

宮闕과 監營의 건축적 구성은 유사한 형식을 보이지만 규모나 立面·意匠에서 監營은 그 격이 떨어지며, 지방관아의 격식은 監營보다 떨어져 지방관의 品階에 따른 形態와 空間構成에 차별성이 나타난다.⁶⁴⁾ 이러한 位階的인 표현은 儒敎的 전통사상의 중심개념인 禮에 의한 秩序의 구현이라 할 수 있으며 축의 구성, 진입형식 등에 의해서 建築化된다.

全義縣 官衙의 客舍와 東軒은 外門樓를 중심으로 直交軸에 가까운 構成軸을 형성하고 있으며, 內衙의 경우는 동헌의 構成軸을 따르고 있으나 내부의 대청공간은 住居의 중심공간으로서 남향을 취하고 있다. 또한 內衙에 부속된 祠堂, 冊房 등과 각 行政廳舍의 경우에서도 대청이나 사무공간은 남향을 취하고 있어 기능적인 空間構成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東軒은 客舍와 坐向을 달리하여 東向에 가깝지만 邑治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또한 고을의 鎭山을 취한다는 점과 官衙에서 가장 커다란 外部空間을 형성함으로써 官衙建築에서 가장 핵심적인 공간임을 나타내고 있다.

全義縣 官衙의 進入形式은 다른 지방관아와는

57) 안길정, 「관아이야기」, 사계절출판사, 2000, p.110
 58)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 左廟右社의 원칙에서 左廟, 즉 都城의 宗廟에 해당하는 것을 鄉校의 文廟로 보고 있다. 그러나 지방의 文廟은 都城 文廟의 축소 복사판(김동욱, 「한국건축의 역사」, 기문당, 1998, p.165)으로 건립되었고, 宗廟에 해당하는 것은 客舍로 왕실 사당인 종묘의 축소판(안길정, 「관아이야기」, 사계절, 2000, p.105)이라 할 수 있다.
 59) 朝鮮後期 忠淸道地方의 54個 郡縣의 邑治, 東軒, 客舍의 坐向을 조사하였다. 邑誌와 지도 등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郡縣만을 조사한 결과, 邑治의 向은 대부분은 南向(35)이고, 東向(10), 西向(6), 東南向(2) 등으로 나타났다. 東軒과 客舍의 向은 대부분 邑治의 坐向과 일치하였으나 結城縣, 大興郡, 德山郡, 連山縣, 全義縣, 鎭川縣, 洪州牧, 懷仁縣 등에서 東軒과 客舍의 坐向은 대부분 直交軸을 이루고 있으며, 이때 客舍의 向은 대부분 南向과 東南向(結城縣)을 취하고 있다.
 60) 客舍의 機能을 살펴보면, 첫째 客舍의 殿閣 북벽 중앙 벽감에 闕牌와 殿牌를 모셔놓고 고을의 守舍이 向闕望拜하던 곳, 둘째 중앙에서 파견된 賓客을 맞이하여 詔書와 명령을 받들어 임금의 威德을 선포하고 行禮하던 곳, 셋째 東翼軒은 東班職(文官)이 쓰는 대청, 西翼軒은 西班(武官)이 사용하는 대청으로 巡撫, 按察의 임무를 행하였던 곳, 넷째 국가적인 차원에서 外國의 使臣을 맞이하였던 곳 등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柳泳秀, 「朝鮮時代 客舍建築에 관한 研究」, 고려대 碩士論文, 1989, pp.9-10)
 61) 「朝鮮後期 忠淸道 地方地圖」(서울大學校 奎章閣)에서 모든 郡縣의 內衙는 官衙의 外三門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62) 洪善基, 「朝鮮時代 宮闕의 空間構造에 관한 研究」, 서울대 석사논문, 1991, p.52
 63) 「忠淸道邑誌」, 全義縣, 場市條
 64) 崔榮喆, 「朝鮮時代 監營의 職制와 建築的 構成의 相關性에 관한 研究」, 弘益大 博士論文, 1994, p.152

달리 監營의 진입과정과 유사하게 3개의 門을 통과하여⁶⁵⁾ 東軒의 앞마당에 이르게 된다. 즉 2층의 門樓를 통과하여 外三門 앞에서 東軒으로의 진입과 客舍로의 진입이 구분되고 있어, 동헌과 객사는 3개의 문을 통과하는 3門 構成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東軒과 客舍의 진입은 2층 門樓→外三門→內三門으로 구성되어 공간의 차별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進入軸은 대부분의 지방관아에서 나타나는 直線的 진입축이 아니라 外三門앞에서 한번 꺾이고 동헌의 마당에서 또 한번 꺾이어 진입하는 屈折軸⁶⁶⁾을 이루고 있다.

특히 全義縣 관아의 東軒은 전체의 중심에 南東向으로 배치되어 있고, 동북쪽의 客舍는 국왕을 상징하여 남향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이는 古來로 君主는 모두 南面하여 政事를 보아왔다는 것과⁶⁷⁾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東軒이 지형적인 조건에 부응하는 배치라면, 客舍는 國王의 권위를 나타내는 象徴的인 배치라 할 수 있다.

즉 象徴的인 측면으로 볼 때에는 客舍가 상류주거에서 나타나는 祠堂과 같이 가장 위계가 높지만 空間造營에 있어서는 東軒이 邑治의 중심공간으로 가장 주요한 시설임을 알 수 있다.

4-4 機能에 따른 領域形成

官衙建築의 기능적인 측면은 관아의 職制라 할 수 있으며, 관아의 본질적인 기능이 地方統治行政에 있음으로 관아의 配置構成은 기능, 즉 職制의 표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관아의 配置構成은 職制와 강한 相關性을 보여주는데, 外三門, 內三門, 東軒, 內衙 등으로 구성된 영역이 지방관아의 中心軸을 형성하며, 각각의 領域은 담장과 건물 등에 의해 分化되고 다양한 門에 의해서 연결되고 있다.

郡縣에 따라 조금씩은 다르지만, 外三門·內三門·東軒·內衙의 構成軸을 중심으로 볼 때, 일반

적으로 六房을 비롯하여 實務를 담당하는 官屬들의 領域은 외삼문 바깥에 위치하고, 관아 문을 지키고 죄인을 호송하며 官令을 전하는 등의 職任을 맡은 使令이나 刑吏들의 영역은 外三門 안쪽이며, 守令의 시중을 드는 공간은 內三門 안쪽, 즉 東軒의 좌우에 배치된다.

또한 東軒의 좌·우측이나 후면에 內衙가 위치하고 주위에 祠堂이나 冊房이 배치되어 지방관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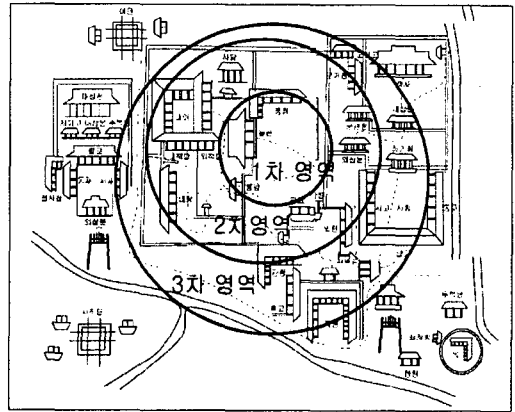


그림 13. 全義縣 官衙의 領域形成

의 배치구성이 職制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2.)와 같이 全義縣 官衙에서 守令의 政務공간인 동헌과 수령의 시중을 위한 茶母房, 馬廐, 及唱房, 廁間 등과 工庫, 연못이 內三門을 경계로 東軒영역을 형성하고 있으며, 동헌의 후면으로 守令의 私的空間인 內衙가 수령의 비서가 거처하는 冊房이라는 완충공간에 의해 분리되어 있다.

관아의 冊房이란 수령의 개인비서와 자제가 머무는 곳으로 全義縣 官衙의 冊房은 內·外冊房으로 분리되어 있는데, 外冊房이 동헌의 영역이라면 內冊房은 內衙의 영역으로, 이는 儒敎的 사상에 의한 內外의 구별이 空間構成에 표현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東軒領域이 1차 영역이라면, 地方官衙의 2차 영역은 內三門과 外三門의 진입공간으로 이뤄진다. 全義縣의 경우 鼓吹廳과 使令長房이 있는 外廊과 使令廳, 그리고 官廳 등이 배치되어 있다. 특히 使令廳은 조선시대 다른 郡縣에서도 동일하게 이 영역에 구성되는 것으로 使令의 임무가 수령의 지방통치행정에 있어서 手足과 같은 존재이

65) 「朝鮮後期 忠淸道地方地圖(奎章閣)」에서 三門構成이 나타나는 邑治는 全義縣과 燕岐縣의 2개 지역으로 특수한 사례로 보여진다.

66) 「朝鮮後期 忠淸道 地方地圖(奎章閣)」에서 官衙의 進入形式이 屈折型을 이루고 있는 郡縣은 丹陽郡, 泰安郡, 永同縣, 全義縣, 唐津縣, 그리고 淸州牧(淸州邑城圖-1790年代 참조) 등으로 6개 지역이다.

67) 孫頌陞, “風水地理說이 都邑形成에 미친 影響에 관한 研究”, 대한지방행정학회, 『도시문제』, 11월호, 1973, p.80

기 때문에 外三門의 안쪽에 배치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3차 영역은 外三門 바깥에 형성되는 것으로 실무를 담당하는 주요 廳舍들이 배치된다. 作廳과 刑廳이 外三門에서 가깝게 위치하는 반면, 鄉廳,⁶⁸⁾ 司倉, 刑獄등은 동헌에서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특히 軍器庫는 客舍에 가깝게 배치되어 있는데, 다른 郡縣에서는 客舍의 영역 안에 구성되기도 한다. 이는 客舍의 西翼軒은 武官들이 사용하는 곳으로 巡撫와 按察을 행함에 따라⁶⁹⁾ 군사 관련시설이 가깝게 위치하는 것으로, 軍事的 職制에 따른 배치구성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지방관아의 機能에 따른 配置構成은 동헌을 중심으로 방사형에 가깝게 펼쳐지고 있으며, 이 들 영역간의 경계는 內·外三門에 의해서 형성되고 있다.

5. 結 論

조선후기에 편찬된 각종 地圖와 邑誌를 통하여 忠淸道地方 全義縣 官衙를 중심으로 지방관아건축의 配置構成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조선시대 全義縣 官衙는 지금의 全義 初等學校 일대에 邑治의 鎮山인 甌山을 서북쪽에 두고 立地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邑治를 중심으로 좌측에는 客舍, 우측에는 社稷壇을 배치하여 都城의 배치원리를 따르고 있으며, 進入을 기준으로 볼 때, 전면에는 東軒을, 좌·우측이나 후면에는 內衙를 배치하였으며, 또한 東軒을 관아의 中心空間으로 하여 주변에 각각의 시설들을 구성함으로써, 宮闕의 배치규범이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都城의 左廟右社, 宮闕의 중심과 주변이라는 空間構造가 표현되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68) 처음에 留鄉所라 불리었던 地方勢力인 鄉廳은 朝鮮前期에 守令體制를 견제하였고, 後期에 京在所의 해체로 그 지위를 守令權에 예속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李錫熙, 朝鮮時代 地方自治論, 中央行政論集 創刊號, 1987, p.297) 조선후기 鄉廳의 지방 재정담당이라는 기능변화는 鄉廳의 위치변화를 邑城안으로 옮기게 되었고, 대체로 東軒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邑의 司倉에 가까운 곳에 위치하거나 客舍와 가까운 곳으로 이동하였다.

69) 柳泳秀, 前揭論文, p.59

둘째, 全義縣의 東軒과 客舍는 道路의 鴻살문을 필두로 門樓, 外三門, 內三門의 3단계의 문을 통과하고, 이러한 진입축의 終點에 위치함으로써 지방관아에서 가장 位階가 높은 공간임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東軒은 客舍와 坐向을 달리하여 동향에 가깝지만, 고을의 鎮山을 취하고 邑治의 중심부에 위치함으로써, 地方官衙의 가장 中心的인 공간임을 나타내고 있다.

셋째, 全義縣 官衙의 중심건물인 東軒은 風水地理에 의한 鎮山과 案對의 형성으로 남동향의 坐向을 취하며, 東北쪽의 客舍는 國王을 상징하여 南向으로 배치되어 있다. 즉, 東軒이 지형적인 조건에 따른 風水地理의 영향을 받은 배치라면, 客舍는 儒學的 思想體系에 의한 象徴的인 배치라고 할 수 있다.

넷째, 全義縣 官衙의 기능에 따른 배치구성은 守令을 중심으로 東軒영역, 客舍영역, 內衙영역, 그리고 業務空間의 영역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각각의 영역은 外三門·內三門·東軒·內衙 등의 構成軸을 중심으로 신분에 따른 職制에 의해 방사형에 가깝게 구성되고 있으며, 이들 영역간의 경계는 內·外三門에 의해서 형성되고 있다.

다섯째, 건축적 구성이 宮闕, 監營, 地方官衙 등으로 차별성을 갖는 것은 儒學的 思維體系에 의한 秩序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全義縣 官衙의 進入形式은 다른 지방관아의 2門 構成과 달리 監營의 진입과정과 유사한 3門 構成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특수한 경우로 볼 수 있으며, 進入軸은 대부분의 地方官衙에서 나타나는 直線的 진입축이 아니라 屈折軸을 이루고 있다.

참고문헌

1. 國史編纂委員會, 「輿地圖書 上」, 1979
2. 「新增東國輿地勝覽 卷之十八」, 全義縣
3. 「韓國地理志叢書 邑誌 忠淸道篇-忠淸道邑誌」, 湖西邑誌, [湖西]邑誌, 1984
4. 韓國人文科學園, 「韓國近代道誌4, 忠淸南道誌」, 3, 1991
5. 서울大學校 奎章閣, 「朝鮮後期 地方地圖」, 忠淸道편, 1998
6. 「忠淸左右道都會衙舍細地圖」(奎4709-18-古)

7. 조치원문화원, 「全義鄉土誌」,
8. 이상태, 「한국 고지도 발달사」, 혜안, 1999
9. 崔昌祚, 「韓國의 風水思想」, 민음사, 1995
10. 李樹健, 「朝鮮時代 地方行政史」, 민음사, 1989
11. 朱南哲, “官衙建築에 관한 研究”, 「大韓建築學會誌」 28卷 116號, 1984
12. 金鍾永, “朝鮮時代 官衙建築에 관한 研究”, 檀國大 碩士論文, 1988
13. 平澤郡, 「彭城邑客舍 實測調查報告書」, 1994
14. 密陽文化院, 「密陽誌」, 1987
15. 朴萬植·李達勳, “衙門建築의 樣式에 관한 研究”, 「백제연구」, vol 16, 1985
16. 崔榮喆, “朝鮮時代 監營의 職制와 建築的 構成의 相關性에 관한 研究”, 弘益大 博士論文, 1994
17. 李相揅, “朝鮮中期 邑城에 관한 研究”, 서울대 碩士論文, 1983
18. 柳泳秀, “朝鮮時代 客舍建築에 관한 研究”, 고려대 碩士論文, 1989
19. 洪善基, “朝鮮時代 宮闕의 空間構造에 관한 研究”, 서울대 碩士論文, 1991
20. 金동욱, 「한국건축의 역사」, 기문당, 1998
21. 안길정, 「관아이야기」, 사계절출판사, 2000

Site Layout of ChungChong-Do Chonui-hyon Government Office in the Late Choson Dynasty

Kim, Ki Deok

(Proceeding Doctor Drgree of Cheongju University)

Lee, Jae Heon

(Professor, Cheongju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is to analyze site layout traditional government office building focused on Chonui-hyon(全義縣) in Chungchong province with Chungchong-do regional maps(忠清道地方地圖) and Eupjis(邑誌, topography) being compiled in the late Chosun dynasty. The conclusion of analysi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Chonui-hyon(全義縣) in Chosun dynasty is gone with a planning principle of the capital city(Han-Seong, 漢城) with disposing Sa-Ji-Dan(社稷壇) and Gaek-Sa(客舍), which are placed to the left and right of Eupchi(邑治), and it is followed in the wake of the spatial structure of Chosun dynasty palace with disposing Dong-Heon(東軒) in front, Nae-A(內衙) at the back of it, or from side to side, also by the Dong-Heon of the center, with organizing each facility around it.

2. Dong-Heon and Gaek-Sa of Chonui-hyon is passed through three step gate, Mun-Ru(門樓), Woi-Sammun(外三門), Nae-Sammun(內三門), from Hong-Salmun(紅門), and are shown hierarchy by having been placed at the end of approach axis.

3. Dong-Heon can be disposed by Feng-Shui(風水) which have influence on the southeast direction with Jin-San(鎮山) and An-Dae(案對), on the other hand, Gaek-Sa can be disposed by symbolic of the authority of a king.

4. Site layout by function of provincial government office is divided into four territory, Dong-Heon, Gaek-Sa, Nae-A, practical business territory, and every territory is organized by official institution on a social position to radiation, by the compositive axis to be made Woi-Sammun · Nae-Sammun · Dong-Heon · Nae-A

5. Approach process of Chnui-hyon government office is three door system similar to Kam-Young(監營) in a different way two door system in most provincial government office, also approach axis is formed by bending.